

감성지능 및 공감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호작용적 영화심리치료 수업의 효과

임애련

신한대학교 지식복지대학원 예술심리치료학과

A Study on Interactive Cinemapsychotherapy Class for Improving Emotional Intelligence and Empathic Ability

Ae-Ryon Lim

Department of Arts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Knowledge Welfare, Shinha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토론을 통한 상호작용적 영화심리치료 수업이 대학생의 감성지능과 공감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4년제 대학의 대학생 212명으로, 실험군과 대조군 각 106명으로 구분하였다. 실험군은 영화감상을 포함한 실습 위주의 수업을, 대조군은 성격심리학 이론 중심의 수업을 한 학기 동안 진행하였다. 실험군은 12주 동안 6편의 영화를 감상하고 연구자와 대상자 간의 구조적 질문과 대상자 간의 비구조적 질문을 통한 응답과 토의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실험군은 감성지능 영역의 자기감성이해와 타인감성이해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대조군은 감성지능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공감능력은 실험군에서 인지적 공감, 관점 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대조군은 공감능력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사후검증 결과,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인지적 공감과 관점 취하기에서 유의하게 높은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상호작용적 영화심리치료 수업은 감성지능과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이 검증되었고, 이론 중심의 수업 또한 감성조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나, 영화심리치료 수업이 감성지능과 공감능력의 더 많은 요인을 향상시켜 영화심리치료 수업의 유효함과 필요성을 증명하였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influences of a cinema psychotherapy class containing a discussion on improving the emotional intelligence and empathic 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The research subjects were divided into a test group and a control group, with 106 students in each group. For a semester, the test group attended a practice-centered course including cinema psychotherapy, while the control group attended a discussion on personality psychology theory. The test group was shown 6 films in 12 weeks and answered structural questions between the researcher and subjects, and nonstructural questions between subjec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test group showed significant increases in self and other emotion appraisals in the emotional intelligence field.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emotional intelligence among the control group. With respect to empathic ability, the test group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cognitive empathy, perspective taking, fantasy, and emphatic concern, while the control group didn't show significant change in empathic ability. In post-test, the test group demonstrated a significantly higher ability in cognitive empathy and perspective taking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is study verified that an interactive cinema psychotherapy class can increase emotional intelligence and emphatic ability. This study also demonstrated the effectiveness and necessity of a cinema psychotherapy class. As the class improves, more factor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empathic ability can be addressed.

Keywords : Undergraduates, Emotional Intelligence, Empathic Ability, Interactive, Cinemapsychotherapy

*Corresponding Author : Ae-Ryon Lim(Shinhan University)

email: mfelim@daum.net

Received February 25, 2020

Accepted June 5, 2020

Revised March 25, 2020

Published June 30, 2020

1. 서론

예술치료라 함은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표현을 통한 치료법과 감상을 통한 치료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1]. 이 중에서 감상을 통한 예술심리치료방법은 선택한 예술 매체의 관람이나 감상을 통해 심리치료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감상을 통해 동일시와 투사 혹은 변형된 의식의 구조를 통해 자신의 심리상태를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가기로 돕는 방법이며 이야기치료, 음악·연극·영화치료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영화치료 혹은 영화심리치료는 상담과 심리치료 분야에서 영화를 비롯한 각종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모든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1] 영화산업의 성장과 함께 심리치료의 한 분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영화가 갖고 있는 치유적 힘이 영화를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영화치료 종류는 자기조력적, 표현적, 상호작용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기조력적 영화치료와 상호작용적 영화치료는 감상을 통한 치료로 본다[2]. 감상을 통한 영화치료의 핵심은 영화라는 텍스트를 두고 상담자와 내담자, 내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통해 영화를 내담자의 삶과 통합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내담자의 유형에 따라 영화의 종류를 결정해야 하며, 영화 속의 메타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영화치료기법은 “동일시 기법(identification method) “과 ”거리두기(탈동일시) 기법(disidentification method) “으로 나누어진다[1]. 내담자가 영화 속 등장인물들과 자신을 동일시 혹은 투사의 과정으로 심리적인 접근 방법을 택하게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영화와 자신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여 관찰자 시점으로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행동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방법을 취하게 할 수도 있다.

즉, 영화치료기법의 장점은 공감과 관찰,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성지능과 공감능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감성지능의 개념은 Howard Gardner[3]의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이후 Salovey & Mayer[4]는 인간의 감성에 지능을 접목하여 감정을 다루는 능력으로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이라는 단어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사회지능의 요소 중 하나로 감성지능을 칭하고 있으며 ‘감정을 인지, 표현하는 능력, 감정을 발생(generate), 혹은 이를 이용한 사고 촉진(assist) 능력, 감정 이해(understand)능력, 감정발달(emotional growth)과 지

적 성장(intellectual growth) 촉진을 위한 감정조절능력’이라고 하였다.

감성지능은 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 감성 활용, 감성조절의 네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기감성이해와 타인감성이해는 자신이나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려는 것이며, 감성 활용은 감성에 관한 정보를 경험으로부터 끌어내어 적용하는 능력, 감성조절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려는 것을 말한다.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상황을 스스로 피하거나 스트레스 자체를 낮출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극복하는 능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공감능력은 인간중심이론의 Rogers[5]가 효과적 상담을 위한 기본적인 요인으로 강조한 이후 심리와 상담학 등의 영역에서 공감에 관련된 연구가 시작되었다. Rogers는 공감능력은 “상담자와 내담자간 상호작용 중에서 어떤 특별한 지점에서 내담자가 느낀 의미”를 민감하게 파악해서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한다. 영화치료는 문해력이 떨어지거나 아동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으며, 시청각적으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수용자의 지각에 강한 영향력을 주는 장점이 있다[2].

공감능력은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공감능력의 구성요인인 인지적, 정서적 요인 중에서 어떤 요인이 더 중요한가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인지적, 정서적 공감이 서로 다른 차원이라는 것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인지적 공감은 타인의 입장 수용과 마음 추론능력의 인지적 이해수준에 중점을 둔다면 정서적 공감은 다른 사람의 정서적 상태에 따른 반응에 중점을 둔 것으로 전반적인 정서수준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같이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영화심리치료에서 등장인물의 행동과 상황을 분석하고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공감능력이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화심리치료를 통해 내담자들은 자신의 문제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등장인물을 통해 객관적으로 자신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영화치료는 영화를 지적인 만족보다는 정서적인 수준으로 접근하여 카타르시스를 얻게 함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처럼 감정을 정확하고 인생을 통찰하게 할 수 있다[6].

많은 학자들은 감성지능과 공감능력이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 학습되거나 향상될 수 있다고 본다[7][8][9][10][11]. 감성지능과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검증된 교육에는 집단 벽화 그리기, 집단 상담을 통한 영화치료, 독서치료 등이 있다. 특히 집단 상담을 통한 영

화치료는 다른 사람이 공감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자신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부분을 집단원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직업 환경 특성상 대학생들에게 영화심리치료 교육과정을 통해 감성지능과 공감능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검증하였다. 영화심리치료 교육과정은 전문 치료자의 지도 없이도 수행할 수 있는 Wolz[12]의 집단 구성과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화 감상, 구조화된 질문 제시, 비구조화된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영화심리치료 교육과정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대조군에게는 이론 중심의 일방향적 강의를 실시하였다. 이는 대인관계뿐 아니라 정서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전문가를 키워 낼 수 있는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효과를 알아보았다는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 연구문제1. 영화심리치료는 대학생의 감성지능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2. 영화심리치료는 대학생의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2. 본론

2.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대학생 212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80명(37.7%), 여자가 132명(62.3%)으로 나타났고, 전공은 사회과학대학 41명(19.3%), 글로벌비즈니스대학 40명(18.9%), 바이오생태보건대학 87명(41.0%), 과학기술융합대학 23명(10.8%), 디자인 예술대학 21명(9.9%)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이 64명(30.2%), 2학년이 53명(25.0%), 3학년이 52명(24.5%), 4학년이 43명(20.3%)으로 나타났다.

실험군은 Wolz[12]의 영화치료집단 운영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영화감상을 포함한 토론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였고, 대조군은 성격심리학 수업을 연구대상 간의 토론 등 상호작용이 없는 PPT 위주의 강의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실험군 106명(50.0%), 대조군 106명(50.0%)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감성지능

Wong & Law[13]의 도구를 번안 수정한 전유정·이수범[14]의 측정문항을 사용하였다. 감성지능은 자기감성 이해, 타인감성이해, 감성조절, 감성 활용으로 측정하였다.

원척도는 총 16문항으로 구성된 Likert형 7점 척도였으나, 공감능력과 통일하기 위해 5점 척도로 전환하여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 값은 .84, 자기감성이해 .69, 타인감성이해 .76, 감성활용 .84, 감성조절 .88로 나타났다.

2.2.2 공감능력

공감능력척도는 박성희[15]가 번역한 Davis[4]의 대인관계 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전체 2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공감능력은 7문항씩의 하위요인 4개로 구성되었다.

하위요인은 관점 취하기(perspective taking), 상상하기(fantasy), 공감적 관심(empathic concern), 개인적 고통(personal distress)이고 관점 취하기와 상상하기는 인지적 차원의 공감영역,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은 정서적 차원의 공감영역으로 구분하였다.

Likert형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공감능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일치도cronbach's α 값은 .85으로 나타났고, 관점 취하기 .76, 상상하기 .81, 공감적 관심 .73, 개인적 고통 .77로 나타났다.

2.2.3 상호작용적 영화심리치료

상호작용적 영화심리치료를 위해 연구자와 연구대상 간 질의응답, 연구대상 간의 토론을 실시하였다. 연구 기간은 1학기 15주 중 12주 동안 진행하였으며, 총 6편의 영화를 감상하고 연구자가 제시한 10~15개의 구조적 질문과 연구대상 간 비구조적 질문에 응답·토의하도록 하였다. 영화는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에서 주제별로 추천하는 영화 목록[16] 중, 연구자의 교육 목적에 따라 자기 관리, 동기부여, 부정적 신념 및 해소, 세대 간 갈등, 가족의 중요성 등의 주제를 선정하였고, 연구대상자들의 추천과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에서 제시한 목록에 따라 어바웃 타임, 굿 윌 헌팅, 인사이드 아웃, 윈터,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가족의 탄생을 선정하였다.

수업을 시작하면서 당일 감상할 영화의 주제에 맞는 이론적 수업을 실시한 뒤,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2주에 걸쳐 해당 주제에 따른 영화 한 편을 1, 2부로 나누어 상영하였다. 당일의 영화 상영이 끝난 후, 연구대상은 연구자가 제시한 구조적 질문에 먼저 응답하면서 본인의 감상을 정리한 뒤, 구조적 질문을 바탕으로 서로의 의견에 대한 토론을 통해 영화 속 상황과 등장인물에 대한 합의되고 공유된 생각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구조적 질문으로는 주인공과 다른 등장인물 간의 관계에 대한 생각과 그런 관계가 형성된 이유, 영화의 등장인물이 자신의 문제를 대하는 인식과 해결 방법, 자신이라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지, 영화 속에서 자신과 관계된 부분과 자신과 유사한 인물 등이 있었다.

수업 현장에서 비구조적 질문으로 제시된 질문에는 특정 장면에서 타인이 가진 생각, 상대방이 생각하는 문제 해결 방법, 등장인물 간의 관계가 형성된 이유 등이 있었다.

2.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영화심리치료 수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사후 대응표본 t검정을 수행하였으며,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사후 차이가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사전 동질성 검사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동질성 검사를 진행한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Table 1. Pre-homogeneity check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t-value
Self emotion appraisal	3.82±0.60	3.85±0.56	0.472
Other's emotion appraisal	3.89±0.58	3.93±0.57	0.510
Use of emotion	3.34±0.82	3.37±0.67	0.276
Regulation of emotion	3.56±0.87	3.52±0.79	-0.412
Cognitive empathy	3.79±0.49	3.70±0.47	-1.387
Perspective taking	3.80±0.56	3.68±0.48	-1.601
Fantasy	3.78±0.66	3.71±0.63	-0.776
Affective empathy	3.41±0.45	3.44±0.44	0.418
Empathic concern	3.53±0.55	3.60±0.53	0.951
Personal distress	3.29±0.58	3.27±0.58	-0.237

3.2 영화심리치료 수업이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

영화심리치료 수업이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 대응표본 t검정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실험군은 자기감성이해($t=-2.008, p<.05$)와 타인감성이해($t=-2.831, p<.01$)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대조군은 감성지능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p>.05$). 이상의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2. Difference in emotional intelligence according to cinemapsychotherapy

	Group	Pre	Post	t-value
Self emotion appraisal	Exp.	3.82±0.60	3.99±0.59	-2.008
	Control	3.85±0.56	3.90±0.65	-0.515
Other's emotion appraisal	Exp.	3.89±0.58	4.13±0.69	-2.831**
	Control	3.93±0.57	3.96±0.61	-0.458
Use of emotion	Exp.	3.34±0.82	3.33±0.84	0.101
	Control	3.37±0.67	3.47±0.81	-0.960
Regulation of emotion	Exp.	3.56±0.87	3.64±0.88	-0.652
	Control	3.52±0.79	3.69±0.91	-1.568

* $p<.05$, ** $p<.01$

3.3 영화심리치료 수업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영화심리치료 수업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 대응표본 t검정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Table 3과 같이 실험군은 인지적 공감($t=-2.677, p<.01$), 관점 취하기($t=-2.237, p<.05$), 상상하기($t=-2.039, p<.05$), 공감적 관심($t=-2.876, p<.01$)에서 실험군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대조군은 공감능력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p>.05$).

Table 3. Difference in empathic ability according to cinemapsychotherapy

	Group	Pre	Post	t-value
Cognitive empathy	Exp.	3.79±0.49	3.94±0.52	-2.677**
	Control	3.70±0.47	3.78±0.54	-1.524
Perspective taking	Exp.	3.80±0.56	3.94±0.56	-2.237*
	Control	3.68±0.48	3.72±0.60	-0.600
Fantasy	Exp.	3.78±0.66	3.94±0.68	-2.039*
	Control	3.71±0.63	3.84±0.73	-1.798
Affective empathy	Exp.	3.41±0.45	3.51±0.52	-1.694
	Control	3.44±0.44	3.44±0.55	-0.062
Empathic concern	Exp.	3.53±0.55	3.73±0.63	-2.876**
	Control	3.60±0.53	3.67±0.65	-1.032
Personal distress	Exp.	3.29±0.58	3.30±0.71	-0.018
	Control	3.27±0.58	3.22±0.69	0.847

* $p<.05$, ** $p<.01$

3.4 사후 비교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후 감정지능과 공감능력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인지적 공감($t=-2.166, p<.05$)과 관점 취하기($t=-2.707,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즉, 영화심리치료 수업을 실시한 실험군은 자기감성 이해, 타인감성 이해, 인지적 공감, 관점 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사후검증 결과 인지적 공감과 관점 취하기만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Table 4. Post check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t-value
Self emotion appraisal	3.99±0.59	3.90±0.65	-1.044
Other's emotion appraisal	4.13±0.69	3.96±0.61	-1.832
Use of emotion	3.33±0.84	3.47±0.81	1.227
Regulation of emotion	3.64±0.88	3.69±0.91	0.403
Cognitive empathy	3.94±0.52	3.78±0.54	-2.166*
Perspective taking	3.94±0.56	3.72±0.60	-2.707**
Fantasy	3.94±0.68	3.84±0.73	-1.030
Affective empathy	3.51±0.52	3.44±0.55	-0.963
Empathic concern	3.73±0.63	3.67±0.65	-0.705
Personal distress	3.30±0.71	3.22±0.69	-0.824

* $p<.05$, ** $p<.01$

3.5 성별에 따른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

3.5.1 성별에 따른 감정지능의 차이

실험군과 대조군의 감정지능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해 검증한 결과를 Table 5에

Table 5. Difference in emotional intelligence according to cinemapsychotherapy

	Group	Gender	Pre	Post	t-value
Self emotion appraisal	Exp.	Male	3.79±0.64	4.10±0.61	-2.011
		Female	3.83±0.59	3.92±0.58	-0.901
	Control	Male	3.81±0.47	3.97±0.59	-1.358
		Female	3.95±0.57	4.05±0.61	0.274
Other's emotion appraisal	Exp.	Male	3.75±0.66	4.19±0.71	-2.836**
		Female	3.97±0.51	4.09±0.67	-1.267
	Control	Male	3.95±0.57	4.05±0.61	-0.751
		Female	3.91±0.57	3.91±0.60	0.037
Use of emotion	Exp.	Male	3.52±0.81	3.23±0.94	1.457
		Female	3.24±0.81	3.38±0.77	-1.052
	Control	Male	3.52±0.64	3.59±0.81	-0.423
		Female	3.27±0.67	3.39±0.81	-0.893
Regulation of emotion	Exp.	Male	3.92±0.79	3.61±0.88	1.843
		Female	3.36±0.85	3.66±0.89	-1.934
	Control	Male	3.80±0.67	3.80±1.01	0.000
		Female	3.33±0.81	3.62±0.84	-2.045*

* $p<.05$, ** $p<.01$

나타내었다. 실험군은 남자가 타인감성 이해($t=-2.836, p<.01$)가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대조군은 여자가 감정조절($t=-2.045, p<.05$)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3.5.2 성별에 따른 공감능력의 차이

실험군과 대조군의 공감능력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해 검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실험군은 남자가 상상하기($t=-2.402, p<.05$)가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여자가 인지적 공감($t=-2.104, p<.05$), 관점 취하기($t=-2.506, p<.05$), 공감적 관심($t=-2.217, p<.05$)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대조군은 남녀 모두 유의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Table 6. Difference in empathic ability according to cinemapsychotherapy

	Group	Gender	Pre	Post	t-value
Cognitive empathy	Exp.	Male	3.86±0.51	3.99±0.57	-1.699
		Female	3.74±0.48	3.91±0.49	-2.104*
	Control	Male	3.68±0.44	3.83±0.49	-1.597
		Female	3.71±0.49	3.74±0.57	-0.582
Perspective taking	Exp.	Male	3.91±0.57	3.92±0.58	-0.093
		Female	3.73±0.54	3.95±0.55	-2.506*
	Control	Male	3.70±0.42	3.77±0.61	-0.799
		Female	3.67±0.52	3.69±0.60	-0.159
Fantasy	Exp.	Male	3.81±0.63	4.06±0.65	-2.402*
		Female	3.75±0.68	3.86±0.70	-1.005
	Control	Male	3.66±0.63	3.89±0.70	-1.808
		Female	3.74±0.63	3.80±0.74	-0.745
Affective empathy	Exp.	Male	3.33±0.45	3.37±0.50	-0.522
		Female	3.46±0.45	3.60±0.52	-1.644
	Control	Male	3.29±0.36	3.36±0.56	-0.876
		Female	3.53±0.46	3.49±0.54	0.613
Empathic concern	Exp.	Male	3.53±0.55	3.73±0.74	-1.825
		Female	3.53±0.55	3.73±0.56	-2.217*
	Control	Male	3.50±0.49	3.59±0.69	-0.723
		Female	3.66±0.54	3.72±0.62	-0.729
Personal distress	Exp.	Male	3.12±0.56	3.00±0.64	1.025
		Female	3.40±0.56	3.47±0.70	-0.720
	Control	Male	3.07±0.50	3.14±0.68	-0.700
		Female	3.40±0.59	3.26±0.70	1.487

* $p<.05$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화심리치료 수업이 대학생의 감정지능과 공감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를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문제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 집단은 대학생으로 한 학기 동안 영화 감상을 포함한 실습 위주의 수업을 진행한 실험군과 이론 위주의 성격심리학 수업을 진행한 대조군으로 구분하였으며, 두 집단은 사전 동질성 검사에서 감성지능과 공감능력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대학생의 감성지능은 영화심리치료 수업을 진행한 실험군이 자기감성이해와 타인감성이해에서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대조군은 유의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화심리치료 수업은 대학생의 감성지능을 향상시켰다.

영화는 자신과 주변 사람을 돌아보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17][18]. 영화를 감상하는 과정에서 감상자는 일시적으로 등장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는데, 감상자와 등장인물이 가진 문제가 유사할수록 감상자의 정서는 증가하고 방어수준은 감소하여 감상자 간의 의사소통이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이러한 동일시를 통해 감상자들은 용기와 희망을 얻기도 하고, 등장인물의 문제해결 방식을 자기에게 적용할 수도 있다. 동시에 등장인물의 행동과 동기를 스크린 밖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의 삶을 통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1]. 감상자들이 영화 속 상황과 떨어진 안전한 곳에서 영화를 보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방어기제는 해체가 되고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신체적 느낌이나 감정변화, 통찰 등을 하게 되면서 자신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감상자는 자신의 입장을 동일시하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영화심리치료 수업의 장점이라 할 수 있겠다.

둘째, 대학생의 공감능력은 영화심리치료 수업을 진행한 실험군이 인지적 공감, 관점 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에서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대조군은 유의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화심리치료 수업은 대학생의 공감능력을 향상시켰다.

영화는 필진성(verisimilitude)이 강한 매체로 감상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그럴 듯하고 있음직하다고 받아들이기 쉽다. 이는 곧 감상자의 지각과 의식에 영향을 주기 쉽기 때문에 영화심리치료 수업은 그 효과가 크며, 특히 집단으로 영화심리치료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영화를 같이 본 감상자들이 영화에서 다룬 문제를 공유하고 비슷한 간접경험을 하게 한다[2]. 이런 측면에서 영화심리치료 수업은 대학생의 공감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실험군의 감성지능과 공감능력 향상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공감

능력의 인지적 공감과 관점 취하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영화심리치료 수업은 감성지능 중 자기감성이해와 타인감성이해, 공감능력 중 인지적 공감, 관점 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을 향상시키나, 사후검증에서는 인지적 공감과 관점 취하기에서만 유의한 향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인지적 공감과 관점 취하기는 연극이나 영화를 본 후에 자신이 등장인물 중 한 명인 것처럼 느낀 적이 있거나 영화나 연극을 볼 때 완전히 몰입하거나, 이야기 속의 사건이 본인에게 일어날 때의 느낌을 상상하는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자체가 영화심리치료의 장점에 해당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영화심리치료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영화심리치료 수업은 기존의 이론 중심의 수업에 비해 감성지능과 공감능력, 특히 공감능력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기간 중에 실험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업에서는 영화 속 주인공과 내용을 자신에게 대입해보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제시하고 토론하도록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개발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교육을 통해 감성지능과 공감능력이 향상된다는 여러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7][8][11]. 즉, 감성능력과 공감능력이 진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영·교육직·각종 서비스직·간호사·상담사 등을 양성하는 학과에서는 이론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본 연구에서 검증된 영화심리치료 등의 수업 과정을 도입한다면 대학생들의 진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에서 감성지능과 공감능력의 어떠한 요인이 변하였는지 검증한 결과, 실험군의 남자는 타인감성이해와 상상하기, 실험군의 여자는 인지적 공감, 관점 취하기, 공감적 관심이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대조군의 남자는 감성지능과 공감능력에 유의한 변화가 없었고, 여자는 감성조절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즉, 기존의 이론 위주 교육도 여자에게는 감성지능 중 감성조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영화심리치료 수업이 남녀 모두에게 더 많은 요인에서 효과를 보여 영화심리치료 수업의 유효함과 필요성을 증명하였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경영학에서는 감성지능과 공감능력을 인적자원 개발영역으로 연구하면서 정직함, 장단점, 지식, 사기 진작, 탄력성, 인내심, 대인관계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에 집중하고 있다[19]. 따라서 감성지능과 공감능력의 향상은 현대 사회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요

인이 될 것이며, 적절한 교육방법을 찾는다면 양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영화 매체를 통한 교육이 이론 중심의 교육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는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다양한 예술매체를 활용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고 검증할 것을 제안해본다.

References

[1] Y. S. Shim, "The theory & practice of cinematherapy", Hakjisa, Seoul, pp. 22, 24, 44-45, 54, 2011.

[2] S. S. Kim, "A study on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a cinematherapy program for improv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Unpublished Doctor's Thesis, Korea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2005.

[3] H. Gardner,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Hachette Uk, 2011.

[4] P. Salovey, J. D. Mayer,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vol. 9, no. 3, pp. 185-211, 1990.
DOI: <http://dx.doi.org/10.2190/DUGG-P24E-52WK-6CDG>

[5] C. R. Rogers, "Client-centered therapy". Cambridge: Houghton Mifflin, 1951.
DOI: [https://doi.org/10.1002/1097-4679\(195107\)7:3<294::AID-JCLP2270070325>3.0.CO;2-O](https://doi.org/10.1002/1097-4679(195107)7:3<294::AID-JCLP2270070325>3.0.CO;2-O)

[6] M. Daniel, Cinema therapy, salon, [cited 1999 May 27], Available From: https://www.salon.com/1999/05/27/film_therapy/ (accessed Feb. 24, 2020)

[7] Y. S. Kang, "The Influence of the Verse Activity Program on the First Elementary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07.

[8] Y. L. Moon, "Professor Mun-Yong Lin's lecture on emotional intelligence", Booksnut, Seoul, pp. 203-221, 2011.

[9] S. Yang,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young children's bibliotherapy program based on the response-based approach", Unpublished Doctor's Thesi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2013.

[10] R. Krznaric, "Empathy: A handbook for revolution", Random House, pp. 73-82, 2014.

[11] A. R. Lim, "Study of Differences in Empathic Ability and Emotional Intelligence according to College Students' Counseling Course-taking Experien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0, no. 9, pp. 103-110, 201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9.103>

[12] B. Wolz, "E-motion picture magic: A movie lover's

guide to healing and transformation", Glenbridge Publishing Ltd., USA, pp. 221, 2005.

DOI:

<https://ps.psychiatryonline.org/doi/full/10.1176/appi.ps.57.2.276>

- [13] C. S. Wong, & K. S. Law,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vol. 13, no. 3, pp. 243-274, 2002.
DOI: <http://dx.doi.org/10.4324/9781315250601-10>
- [14] Y. J. Jeon, S. B. Lee, "The Effects of Employees' Personality Traits on Job Satisfaction and Burnout in the Deluxe Hotel", Korea Academic Society of Tourism Management, vol. 26, no. 3, pp. 395-412, 2011.
- [15] S. H.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onents of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35, no. 5, pp. 143-166, 1996.
- [16] Y. S. Shim, "2019 KIFA movie list for Cinematherapy and Cinemaworkshop", Shimyoung publish, Seoul, pp. 46-62, 145-151, 157
- [17] M. L. Heston, T. Kottman, "Movies as metaphors: A counseling intervention", The Journal of Humanistic Education and Development, Vol. 36, No. 2, pp. 92-99, 1997.
DOI: <http://dx.doi.org/10.1002/j.2164-4683.1997.tb00377.x>
- [18] G. Solomon, "The motion picture prescription: Watch this movie and call me in the morning", Author's Choice Publishing, 1995.
- [19] S. K. Oh,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Job Satisfaction - Focused on mediate effect of Self 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013.

임 애 련(Ae-Ryon Lim)

[정회원]



- 2002년 8월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교육학석사)
- 2015년 2월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이학박사)
- 2013년 ~ 2018년 3월 : 신한대학교 겸임교수

- 2018년 4월 ~ 2019년 2월 : 신한대학교 특임교수
- 2019년 3월 ~ 현재 : 신한대학교 지식복지대학원 예술심리치료학과조교수

<관심분야>

발달심리, 예술심리